

# “소상공인 자립·재도전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가장 시급  
벤처 규제 해소, 글로벌화 추진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자립·재도전 지원, 혁신  
막는 규제 해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  
행 개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영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을 통해 밝  
힌 주요 키워드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  
는 중기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  
리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  
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  
행하고 저금리 용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  
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  
데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은 36조4000억원이다.

이 장관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화  
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감  
한 규제→신산업 육성→민간 주도 성장  
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바로잡아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을 조  
성해 나가는 등 모든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T 보안 솔루션 회사를 창  
업해 20년간 이끌어온 기업인 출신이  
다. 정치권에 몸을 담기 전엔 한국여성  
벤처협회장을 맡으면서 정부를 향해 규  
제 개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 서두에서 중기부

직원들에게 자신을 “카리스트에서 암호  
학을 전공하고 20년간 IT 벤처를 운영  
한 공학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과생 천국인 국회는 참 낯선 곳이었고,  
(자신이)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대폭  
확대 ▲인재 양성 및 기술적 고도화 ▲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 등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혁신기업 등 대한민국의 ‘9983’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직  
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장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철  
하고 헌신적인 ‘공직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가 정신’을 더해 작은 문제라도 끝  
까지 해결해 최선의 답을 도출해내자”  
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우리부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  
고 협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냉철한 판단  
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감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영상을  
포함한 7장 짜리 프리젠테이션도 준비  
해 발표했다. 그는 “중기부가 쫓기듯,  
단기간에,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거나,  
그저 크게 비판받지 않으려고만 하거  
나, 생색내는 일에만 몰두해선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벤처  
와 소상공인의 역량이 대한민국을 이끌  
어 나가고,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이 되  
게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소  
벤처기업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이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앞서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전임 권철승 중  
기부 장관과 환담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하게  
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면  
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중앙회, 中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포스코와 맞손... 참여기업 모집  
올 100개사에 최대 2.4억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포스코가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가  
로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포스코와 ‘2022년 대·  
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  
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84개사  
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최근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중앙  
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담기관)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포스코와 거래관  
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의 60% 이내에서 8400만~2억4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 수준 스  
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적응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  
고·친환경·안전 등 ESG 분야 스마트공  
장 구축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진단(포스  
코,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ICT, 포  
항산업과학연구원)을 활용해 사전진단  
부터 사후 A/S까지 병행하는 현장 밀  
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기업에는 포스코의 혁신  
방법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포스코의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 컨설팅과 동반성장지원단  
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지도활  
동도 지원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  
회, 중기부는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  
앙회는 중기부, 대기업과 함께 상생형 스  
마트공장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해 중소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  
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2분기 ‘이달의 소상공인’ 선정

선정자에 홍보기회·부상 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의소상  
공인’을 올해 2·4분기부터 선정한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의 소상  
공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분야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으  
로 코로나 극복노력, 온라인 진출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등을 통  
해 모범이 되는 ‘소상인’ ▲스마트 기술  
을 활용한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연구  
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모범이 되  
는 ‘소공인’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  
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분해 분야별 1  
명씩 선정한다.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

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  
인으로서, 3년 이상 사업체 경영을 기본  
요건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뽑히면  
소진공 이사장 표창 수여, 홍보기회 제  
공, 부상 수여 등 혜택을 준다. 대상자 선  
정은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개 분야별로 각각 진행한다.

조보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  
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소상공인’을 기획했다”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우수 소상공인을 꾸준히 발굴·  
홍보 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6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창진원, 해외전시회 참가 스타트업 모집

총 35개사 안팎 접수

창업진흥원이 해외 시장 개척과 네트  
워킹 구축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  
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1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모집하  
는 해외전시회는 올해 10월 싱가포르 센  
토사에서 열리는 ‘SWITCH 2022’, 11월  
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예정하는 ‘SLUS  
H 2022’이다. 모집규모는 SWITCH의  
경우 2015년 5월 16일 후 창업한 기업 15  
개사 안팎, SLUSH는 2019년 1월 1일 이  
후 창업한 기업 20개사 안팎이다.

올해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은 전시회 참가 4개월 전 창업기업 선발  
을 끝내 참가기업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사전  
교육 및 피칭대회 수상 멘토링 등) ▲K-  
STARTUP관 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 ▲  
기업지원금(SWITCH 2022 최대 170만  
원, SLUSH 최대 250만원)등을 종합적으  
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은 4개월 간의 사전 교육·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이 글로벌 창업 생태계 및 참가  
전시회를 이해하고 해외 시장에 맞는 BM  
구축, 성공 사례 등을 파악하며 글로벌 진  
출을 위한 준비를 한다. /김승호 기자

## 여경협 여성가장 창업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가족을 부양  
하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5월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16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로  
신청요건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여성가  
장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의 고정금리로  
2년씩 최장 6년까지 지원받는다.

이미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창  
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  
년 미만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듀오백, 메쉬의자 ‘에어로 시리즈’ 선택

25일부터 와디즈 플랫폼서 펀딩

듀오백이 여름을 겨냥해 통기성과 탄  
성이 뛰어난 메쉬의자 ‘에어로 시리즈’  
(사진)를 선보인다.

16일 듀오백에 따르면 신제품 ‘듀오  
백 에어로 시리즈’는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펀딩을 진행한다. 특히 펀딩에 참여하  
는 얼리버드 소비자는 정가가 대비 최  
대 4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하는 에어로 시리즈는 기존 듀오  
백의 스테디셀러인 골드 제품과 Q1슈  
프림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  
존 등판의 편안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에어로 좌판 시스템을 결합해 통기성을



더했다.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한 에어로 메  
쉬 좌판은 바람을 순환시키고 체압 분  
산효과와 통기성이 뛰어나 장시간 착석  
에도 편안하고 상쾌하다. /김승호 기자